**과제문②**

**해와 달이 본 세상**

해가 달에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참 아름다워.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지.

나뭇잎은 초록색이라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해의 이야기를 들은 달이 말하였습니다.

“아니야, 나뭇잎은 은빛으로 빛나. 그리고 사람들은 늘 잠들어 있어.”

달은 자기가 본 모습을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해는 달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잠을 잔다고? 아니야,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여.”

달도 마찬가지로 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할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하하, 너희는 자기가 본 모습만 말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자기의 말이 옳다고 하

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상도 있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해는 낮의 모습만 보고 말하였지. 달은 밤의 모습만 보고 말하였어. 누구나 자기생

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단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기 때문이지.”

해와 달은 서로 마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課題文②

太陽と月が見た世界

太陽が月に人々が住んでいる村の話を聞かせました。

「人々が住んでいる所はとても美しい。

人々はいつも一生懸命仕事をしているよ。

木の葉は緑色でどれだけきれいなものか。」

太陽の話を聞いた月は言いました。

「違うよ、木の葉は銀色に光っている。そして人々はいつも眠っているよ。」

月は自分が見た姿をそのまま話しました。

太陽は月の話を理解出来ませんでした。

「人々がいつも寝ているだって？ 違うよ、人々はいつも忙しそうに動いているよ。」

月も同じように太陽の話を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そこで雲のおじいさんにずねました。

「ははは、君たちは自分の見た姿だけ話しているようだね。それでお互い自分の話が正

しいと言うのだよ。しかし自分が知ることの出来ない世界もあるのだよ。」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太陽はたずねました。

「太陽は昼間の姿だけを見て話したよね。月は夜の姿だけを見て話した。

誰も自分の考えだけ正しいと押し付けると失敗することもあるのだよ。

私の考えも重要だけど、他の人の考えが正しい時もあるからだよ。」

太陽と月はお互いに向かい合ってうなずきました。